

# 선생님과 친구들 함께 행복한 가을 나들이~

# 전북도 혁신학교 161개로 늘어나 도교육청, 12개 혁신학교 추가 선정

##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 '놀-잡(JOB)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전라북도 완주교육지원센터(교육장 윤덕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및 인솔교사 63명을 대상으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놀-잡(JOB)'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으로 다녀왔다. 에버랜드 '놀-잡(JOB)'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은 관내 학생과 선생님들의 1년간의 기다림과 함께 드디어 떠나게 된 체험학습으로 지역사회를 벗어나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 직업역량력, 사회화능력을, 독립생활기술, 여가관리 능력 등의 함양을 목표로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쌀쌀한 아침 날씨와 상관없이 다들 기다림 싹쓸이 반으로 하나 들춰 모여 버스에 몸을 싣고 마음을 벌써 꿈과 신기함으로 가득한 에버랜드로 향해 있었다. 가을 정취

가 물씬 풍기는 가을 들녘과 가을 산은 우리들의 여행을 흥을 더하였고 장거리 버스 여행에 지루함 대신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에버랜드 할로윈 축제와 야간 불꽃 쇼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번 여행은 가을 날씨의 쌀쌀함을 잊게 해주고, 에버랜드 스킨을 이용한 생생동물탐험과 신기한 과학원리를 알고 놀이거구를 탐험해보는 프로그램은 교과서 밖에서 오감으로 소통하고 느껴보는 즐거운 경험의 시간이었다. 한국민속촌에서 해설사와 함께 조선시대 마을의 명소를 구석구석 유람하며 각 지방의 기후와 자연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전통가옥, 선조들의 생활문화를 살펴보는 재미를 맛보았으며, 아이의 전통예술공연 관람과 향토음식체험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맛과 흥겨



윤을 만져보고는 특별한 체험이었다. 교육장의 인사말과 함께 떠나는 '놀-잡(JOB)'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은 우리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해 더욱 소중한 행복한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들이었다. 이진원 기자 59

전라북도교육청이 고창초, 군산제일중, 양현고 등 12개 학교를 2017년 혁신학교로 추가 선정해 발표했다. 또 전주 덕일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의 혁신학교는 총 161개로 늘었다. 이번엔 선정된 혁신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고창초 1교, 중학교는 군산제일중 등 6개교, 고등학교는 양현고 등 5개교다. 이는 중·고등학교의 학교 혁신에 대한 열망이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요 선정학교 현황을 보면 고창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100여명으로 농촌학교로서는 보기 드문 대규모 학교이나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노력, 교육과정과 수업 개선 의지,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가 높게 평가되었다. 군산제일중학교와 이리남초등학교는 도심형 혁신학교 확산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 군산제일중학교는 학교 혁신을 꾀하는 교사 그

들이 뚜렷한데다 수업 개선 의지가 분명하며, 이리남초등학교는 혁신 도입으로의 학교 혁신 교무부 구축의 의미가 담겨 있다. 군산대성중, 왕산여중, 만산서중학교는 농촌형 혁신학교로 학생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게 높게 평가되었다. 부귀중은 진안 지역 초·중 연계 및 멘토와 차원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9월 2017년 혁신학교 공모를 해 총 21개 학교가 응모를 했으며 1차 운영계획서 심사시 2차 학교 방문 심사를 거쳐 12개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 정읍 “한 차원 높은 삶의 질 실현”

## 현장행정·창의정신 기반...탄탄한 지역발전 기반 다지며 삶의 질 높여

'시민 모두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정읍'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선 5, 6기 정읍시가 '한 차원 높은 삶의 질' 실현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시정방향을 한 정읍시는 소통과 협치 그리고 현장행정과 창의정신을 기반으로 한 시정운영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광복활민한 행정혁신을 이끌어 냈고 탄탄한 지역발전 기반을 다져가며 시민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다.

회장은 당초 3기였으나 2기를 증설하여 11월 현재 5기를 갖추고 있다. 1일 평균 화장이용량은 10건이다. 현재 서남권 주민들의 건 당 화장 비용은 7만원이다. 추모비 개별 전 전주와 전남 광주, 충청도 세종시까지 지정장소를 할 경우 지금의 비용보다 최소 5배에서 최대 10배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것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

개관 1주년 기념 기획전시가 개막돼 내년 1월 3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개관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정읍시 문화예술발전을 견인해가고 있다. ▲연이따름 = 중앙동 73번지 (옛) 군청 부지 6천248㎡에 공연장 208석과 전시공간, 사무실과 부대시설 등을 갖추고 들어설 예정이다. 총 82억6천만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12월 착공했고, 내년 4월 준공예정이다. ▲고택문화체험관 = 산외면 김동수 가옥 옛 고택문화체험관은 지난 6월 준공됐다. 숙박체험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예술 전수 및 공연, 체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 노하우를 갖춘 사단법인 한옥마을사랑들이 위탁, 운영되고 있다. 6월부터 매주 토요일(10월 8일까지 공연) 단종왕후의 비인 첩보 출신 정순왕후의 삶과 단종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담은 서사무극 '하늘연인'을 공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이러저는 투자 문의...정읍이 달라졌어요 KTX시대 개막

KTX 개통으로 정읍의 전국 반나절 생활권시대가 열리면서 지역 경쟁력이 훨씬 높아졌다. 신장동 철강산업단지물 비롯한 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등 전·남북을 아우르는 물류와 교통, 관광 허브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교통연구원과 전북연구원 이 개통 1주년을 맞아 조사한 바에 정읍역 이용객이 개통 전 41만명에서 54만명으로 33.7%가 늘었다.

## 정읍의 미래를 책임진다! 정읍 장학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에 건립된 정읍 장학수이 8월 27일 준공과 함께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정읍 장학수는 연면적 3천997㎡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기숙사와 독서실, 상담실, 휴게실, 체육단련실, 게스트룸(방문자 숙소), 다목적실 등 최첨단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입시는 월15만원(3식 포함)으로 저렴한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없이 오롯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양질의 식단으로 입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식당은 직영한다. 해 후배들의 학업과 취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이보다 더 편할 수는 없다 수요자 중심 선진교통환경 구축

▲브렌드 클래식 출생 = 정읍시 브랜드를 내장신발특수 (☎063.531-1000)가 4월 출범했다. 브랜드를 출범에 따라 이용자 대기시간은 물론 대기시간 단축에 따른 운수회사들의 연료비 절약과 함께 청소년과 노약자, 여성 등에 대한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으로 이용자들에게 꾸준히 높고 있다. ▲회복자동차 경영 차고지 조성 = 회복자동차의 도로변 주차가 이용도로 발생 주자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한 사업



이다. 53억원을 들여 하모동 일원에 178면(화물자동차 118면, 승용차 60면) 규모로 조성했고, 10월 완공됐다. ▲복지택시 운영 = 대중교통 사각지역에 있는 농촌마을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고령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9개 읍면동 43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다. 1회 이용 시 요금은 마을회관에서 승장까지지는 100원, 읍소재지까지는 1000원으로 정산요금의 차액은 시에서 보전한다. ▲사들말마을 도로변 주차 = 지난 7월 죽림터널 공사에 착공, 내년 12월 개통될 예정이다. 또 이에 앞서 6월에는 작은 말고개 공사에 착공했고, 내년 11월 완료될 예정이다.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정읍! 복지시설 확충 ▲정읍공무터프리스트센터 = 지난해 4월 개관했고, 1만여 장의 어린이도서 4천 800권 70여명, 연인원 모두 8천400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8월 현재 621세대 2천400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족들의 보금자리로 사랑받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빠른 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보훈회관 = 보훈단체 회원들의 화합의 장은 물론 호국보훈 선양의 중심공간이다. 총층도 157번지에 부지 527㎡에 연건평 약 700㎡, 3층 규모이다. 상이군경회와 6.25 참전유공자회 등 6개 단체가 이용하고 있다. ▲고용복지+센터 = 각 기관에서 수행했던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 협의 모델이다.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한 곳에서 해결하고 있는 이 곳에서는 고용분야의 고용센터, 시 일자리팀, 장애인취업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고, 복지분야에 회

망복지 지원, 자활고용지원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센터 내 기간 간 협업을 통해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민원인에게 제공한 연계서비스는 3천224건에 달해 협업모델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 민민의 안전 시스템 구축

▲서민부담 완화를 위한 진료특례 구축 = 내년부터 정읍, 고창, 부안의 접근성이 뛰어난 정읍·산성병원에 구축하게 된다. 2018년 사업이 완료되면 골목타임을 놓치지 않고 응급환자의 귀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안전점검관리센터 구축 = 10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11월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초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가동되면 부서별로 설치 운영 중인 CCTV를 통합, 24시간 상시관제로 운영됨에 따라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 생활권 지역발전 정책의 거점이 되다 동보인 지역발전정책

인근 지자체 간 협업체정을 통해 상생발전을 꾀하는 물론 광역행정의 모범사례로 주목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1년부터 인근 지자체인 고창, 부안과의 관광·인사고령 3시군구 공동으로 추진한 서남권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시는 또 이들 지자체와 전국 최초로 '전북 서남부 도·농연계 생활권'을 구성 지역행복생활권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나서 3년(2013~2015) 연속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인 연계협력사업 및 선도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는 결실을 거뒀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우수, 운영체계 최우수, 행복마을 만들기 콘서트 대통령령상 대한민국 지역발전 총괄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역발전정책 분야 국내 최고 도시로 공식 인정받았다.

## 편리하게, 저렴하게! 장애문화의 획기적 선도 서남권추모공원

지난해 11월 개원한 서남권 추모공원은 서남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획기적인 장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 고창, 부안에 이어 올해 4월부터는 김제 시도 공동으로 참여,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고 있다.

## 가까이에서 편하게 예술을 즐긴다 문화예술시설 확충

▲시립미술관 = 시 단위 공영미술관으로서 전라북도 내 최초로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3개의 전시실과 체험실과 수장고, 사무실,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까지 '정읍(부흥-풍경전)' 등 세 차례의 기획전시회를 가졌고, 지난 날 27일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으로! **확~**  
우리학교 도서관이 바뀝니다!

아 리 학 탐  
아 스마트

# 체험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 공간이 펼쳐집니다.
- 동영상과 체험도서, e-book으로 헌정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 학교 도서관은 물론 집에서 손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체험 상담 대표이사 이 지 연

주최회사 **세화테크** 대표이사 이 지 연

010-5488-2617  
seohatech@naver.com  
192-6287-9817  
192-6287-9817